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 선출된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중앙선교교회 - 김삼중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선교 방송 스케줄
▶ 방송 선교지원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아프리카 우물과기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 샤론센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한국선원 선교회	
▶ 이완구 장학사역	

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	▶ 미주 남침례회 SBC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쿠바(정경석)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니카라과(혜밀탄)	▶ 한인국내선교부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한인해외선교부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잠비아(Emile)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말레이시아(고인섭)	▶ 밀알선교단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1년 8월 15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분당
-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분당
-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 11:00AM / 분당
- 사랑부 예배 (장 애인).....11:00AM / 베툴레헴
-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 유년부 예배 9:30AM / 베툴레헴
11:00AM / 나사렛
-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분당
-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툴레헴

금요일모임

- Youth 7:00PM / 안디옥
-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 한어부 월-토 / 6:00AM / 분당
-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YouTube tfbc

www.tfbc.org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1부 인도: 남궁곤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3부 인도: 정주영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409장 “목마른 내 영혼”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3부: “빈들에 마른 풀같이”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 오셨네”

“주 품에”

기도

1부: 권태운 안수집사

3부: 이다니엘 집사

봉헌찬양

1,3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 소식

* 성경본문

요한복음 3:14-21

제목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선포

정주영 목사

* 응답찬송

1부: “살아계신 주”

3부: “십자가를 참으신”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야, 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1-2)

7. 디모데후련 2단계(기독교 기본진리) 개강: 9/12(주일), 오후 1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고, 교재를 미리 구입하셔서 개강일 첫과를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 문의: 사무실)

※ 2단계: 하나님의 VIP를 수료한 모든 성도(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모든 성도들은 필히 수강해야 함)
※ 교재비: \$20. 장소: 추후공지

8. TFBC 북클럽 시즌 2 개강: 9/12(주일), 오후 1시

북클럽은 정해진 책으로 진행되는 도서 나눔 클래스로, 이번에는 2개의 클래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래스#1: '당부 하나님', 클래스#2: '내가 만든 신'
※ 교재비: 각 \$10. 장소: 추후공지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코로나 방역 지침

- 1)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앉아주세요.
- 2) 성인예배는 입장 절차를 생략합니다(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지 않음).
- 3) 다음세대예배(유치,유년,Youth)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겠습니다.
- 4) COVID-19의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TFBC 예배 캠페인: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다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기도로 준비하기 (예배 10분 전부터)
- 2)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기
- 3) 핸드폰은 진동(무음) 모드로 설정하기

◆ 교우동정(Compassion) ◆

◇ 휴가: 프랭크 토레스 목사 (8/9-8/21)

◇ 중보: Tiffany Walker, John Zemzars, William Dungey, Keneth Adkins, Mike Mooer, Eric Mose,
Tom Bayliss, 신의범, 최재돈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어청년부)/수요성령예배/새벽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공합니다.
- *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분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Mission Wednesdays(선교 수요일): 7/28부터 5주 동안**, 우리교회 선교사님과 강사들을 통해 선교 사역을 나누고, 함께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18(강승수 목사), 8/25(정주영 목사)
- 제 4대 담임목사님 청빙** 진행과정과 청빙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8월 15일 현재 14명의 담임목사 지원자가 있습니다.
 - 2021년 8월 29일에 평가 과정을 거쳐 선별된 후보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지원자와 청빙위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영어청년부 수련회: 8/24(화)-26(목)**. 장소: Black Diamond Camp. 회비: \$140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2022 Awana 개강 및 교사 모집: 9/1(수) 오후 7:00-8:20**. 새학년 Awana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수요 어와나에서 교사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남궁곤 목사)
 - * 대상: 3-5세(Cubbies)/ K-2학년(Sparks)/ 3-6학년(T&T)
 - * 1인당 \$65 / 등록: 온라인으로 신청(교회 홈페이지)
- 예수마을모임**: 예수마을 모임(한달에 1번)을 각 마을 형편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돌봄지기께서는 COVID-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수마을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성령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남궁곤 목사

찬양과기도 찬양 팀
 기도 영숙고령 집사
 제목 [Mission Wed. 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성경본문 마태복음 6:33
 말씀선포 강승수 목사

봉사위원 Volunteer

	이번 주	다음 주
기도 Prayer	1부 권태운 안수집사 3부 이다니엘 집사 수요 영숙고령 집사	1부 정자얼프 집사 3부 이종덕 집사 수요 진데드렛지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분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8/16(월)	사사기 6:25-32	전우일 목사	8/17(화)	사사기 6:33-40	남궁곤 목사
8/18(수)	사사기 7:1-8	정주영 목사	8/19(목)	특별새벽예배	강승수 목사
8/20(금)	사사기 8:1-9	남궁곤 목사	8/21(토)	사사기 8:10-21	전우일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스스로 개척하라**
□ **본문: 여호수아 17:14-18**

요셉 자손(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한 지파의 몫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땅을 더 달라는 것과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게 대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4절) 큰 민족에 걸맞는 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큰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교만과, 제비뽑기에 대한 불만이고 불평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어서 요셉 자손의 말을 잘 들어줄 수도 있는 위치였으나 요셉 자손의 요청에 대하여 단호하게 원칙에 따라 명령합니다. 큰 민족이 되었으니, 큰 민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것이었고, 또한 큰 민족이 되어서 땅이 좁다면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요셉 자손은, 그 땅의 상황을 이미 다 알아보고서는 산지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한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철 병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듯 보이나, 불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셉 자손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 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언약의 약속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고, 승리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철 병거를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에게 당신들은 숫자도 많고, 능력이 되기에, 큰 민족이라면, 큰 민족으로서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미 요셉 자손도 스스로 고백했지만, 요셉 자손의 문제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어떠한 책임감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헌신하며 희생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쟁취해야 합니다. 안주하여 거저 얻으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쫓아내고 그 땅을 얻으라 명령합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8절)**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교회)가 넓혀 가야 할 지경”은 무엇일까요? 요셉 민족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난 45년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호수아의 명령은 지금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영적인 지경에 만족하지 말고, 그 지경을 넓혀 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장 예배가 불가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것이 감사했는데,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나타해지고 소홀해진 것처럼,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감사가 변하여, 현장 예배에만 만족하고 안주하여, 그 지경을 다시 넓혀 가려는 의지는 사라진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넓혀 가야 할 영적인 지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전도의 영역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받은 복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감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듯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안주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주의 복음 전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내의 많은 사역의 지경이

이제 넓혀 지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 사역, 새벽예배, 수요성령예배 미션 웬즈데이, 디모데제자훈련과 북클럽, 어와나, 한글학교, 유스와 YAM을 비롯하여 다른 부서들도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개척하는 것은 눈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을 내딛고 참여함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지경을 개척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의 주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처럼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개척하여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비록 철 병거가 앞에 있다고 할 지라도,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 자손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처럼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땅을 요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85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거인들이 거주했던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던 갈렙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수 14:12)**

갈렙은 언약자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핵심적인 리더십에 있었기에, 더 많은 분깃을 그냥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 자손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도 않은 채 불평하며, 쉬운 땅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스스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은 **“비록 거인들이 그 성에 있고, 그 성이 견고하고 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였습니다.

사사기 1-2장을 보면 각지파가 이제 각각 순종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방금 이 갈렙이 소유했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었기에, 철 병거에 무너지고, 거인에 무너지고, 견고한 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하는 약속의 믿음이 없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가나안을 몰아내기는 커녕 함께 거주하게 되고, 혹은 가나안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싸워 그 지경을 넓혀 갔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겨 놓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어 소망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와 승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련과 환란과 어려움과 환경의 두려움이 있을 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 **나눔 적용 질문**

- 1. 요셉 자손의 두차례에 걸친 요구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었나요?
- 2.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3.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4. 나는 어떻게 전도라는 영적 지경을 넓혀갈 것인가요? 또한 앞으로의 교회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한 나의 결단은 무엇인가요?